동아일보 - 1938. 09. 06/ 3면/ 3단

現代의 危機와 哲學 ;

不安한 生을 營爲하는 분께 [제2회]

金基錫

生을 理性의 側面에 잇어서 抽象시킬 때 觀念論 乃至 形而上學이 構成되고 生을 實踐의 側面에 잇어서 抽象시킬 때 唯物論 乃至 機械主義가 歸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生을 精神 또는 物質에 잇어서 說明할 것이 아니오 도리어 精神이니 物質이니가 生에 잇어서 說明되어야 하겟읍니다.

사람들은 오늘에 잇어서의 實踐의 缺如를 몹시 탄식합니다. 그런데 實踐의 理性性이란 것을 생각할 수 잇는 한에서 實踐의 缺如는 實踐의 缺如이면서 겸하야 理性의 缺如가 되는 것이 아니겟읍니까? 새로운 文化의 建設은 곧이 喪失된 理性의 □□입니다. 現代가 理性과 함께 또 理性을 通하야 實踐을 살려야 하는 한에서 文化의 再建이 文化와 아울러 生活을 위하야 진정 시급하지 안흘 수 없습니다.

文化란 본대 理性에 依한 生의 自己解釋 또는 自己批判에 지나지 안읍니다. 文化의 建設은 主體에 對한 깊은 省察을 가저오고, 이 省察은 나아와 一切의 行動에 대한 前提 또 그 根源이 됩니다.

새로운 文化의 創造 이것은 낡은 文化와 함께 그것을 가꾸어 준 낡은 生活에 대한 가슴 압흔 袂別입니다. 이 袂別 없이 새로운 文化가 싸혀질 길이 잇겟읍니까? 낡은 生活에 대한 批判과 새 生活에 대한 志向. 거기에는 벌서 새로운 文化의 싹이 소사오릅니다. 生活이 쓰러질 때 文化마저 쓰러집니다. 그러나 文化는 生活에 앞서 일어서 生活을 일으키지 안허서는 안됩니다. 生活과 文化는 본대 한 개 共通地盤 우에 서는데, 이 共通地盤이 다름 아닌『生』또는 實存입니다. 生活의 崩壞이자 文化의 崩壞이고 文化의 建設이자 生活의 建設이고, 우리들은 여기에서 生活과 文化의 聯關에 關한 現實構造를 □□이 理解 또 □□□지 안허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앞에서 現代를 □□의 世紀라고 불럿읍니다. 아닌게 아니라 人類의 歷史를 通해서 現代처럼 生活 및 思想이 아울러 심한 混亂 속에 빠진 時

代가 잇엇겟읍니까? 사람들은 歷史에 잇어서의 몇 개의 轉換期를 想起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거리에 汎濫하는 저 어두운 潮流, 退嬰, 逃避, 不安, 辨說 같은 것을 想起할지도 모릅니다. 아하, 진정 무엇 때문에 또 어떠케 되어서 오늘에 이르러 사람들의 목소리, 발소리가 저다지도 요란스럽습니까? 어제는『哲學』의 사태 속에서『理論』이 질식을 당햇고, 오늘은 사나운『殺伐』에 눌리어『實踐』이 발버둥질을 치고 잇읍니다.

現代에 잇어서의 **思惟**의 危機. 이것은 그 조차 오는 淵源이 잇거던 思惟의 危機는 단순히 思惟의 危機에 그치는게 아니거던. —이러케 마치 現代의 危機를 解剖하려는 것 같이 나서려는 이들이 잇읍니다. 또 그들의 내어 세우는 結論과 前提도 우리들에게는 무던히 귀에 익고 입에 익엇읍니다.

現代의 危機는 現代가 한 개 轉換期인 것을 보인다. —이러케 보는 것은 쉽습니다. 現代에 잇어서의 思想의 危機는 그 基礎로서의 現實의 動搖, 崩壞에서 온다. —이러케 보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나아가 무엇으로써 現代 危機의 根本徵表를 삼어야 하겟읍니까?

歷史가 본대 한 개 變遷을 意味하는 한에서, 또 이 變遷이 그 속에 **發展**과 轉落을 가지지 안흘 수 없는 한에서, 한 時期가 光明에 싸힌 建設期임에 反하야 다른 한 時期가 暗黑에 사로잡힌 凋落期가 되는 것은 歷史의 맛당한 行程이 아닐 수 없읍니다. 現代를 가르처 凋落期 또는 過渡期, 轉形期라고 보지 안켓습니까. 단순히 이러케 보는데 그친다고 하면 우리들은 現代의 危機의 具體的인 性格을 마츰내 일허버리고 맙니다. 現代만이 유달리 歷史에 잇어서의 唯一한 動亂期일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現代는 아시다싶이 現代를 表現하는 思想이란 것을 가젓읍니다. 現代는 이 어떤 한 개의 思想에 잇어서 자기를 내어 세우려고 합니다. 이 어떤 한 개의 思想은 사람들에게 모두를 現實에 잇어서 보기를 권합니다.

現實만이 實在이고 現實만이 根源이매 모두를 이 現實의 流動과 生成에 잇어서 說明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이것을 다른 데서『運動의 論理』또는『現實의 形而上學』이라고 부른 일이 잇읍니다.

現代에 잇어서의『現實』은 希臘에 잇어서의『理性』, 中世紀에 잇어서의『神』, 啓蒙期에 잇어서의『自然』에 該當합니다. 나는 이 한 개의 思想態度가 올코 그르고 또 깊고 여튼 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앞을 다토아 이 한 개의 見解에로 아모런 批判 없이 쏠리는 데서 現代에 잇어서의 思惟의 危機가 構成되고, 이제 이 思惟의 危機가 現實의 危機로 더부러 서로 얼매이고 자어치는 데서 現代의 危機의 具體的인 面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고 합니다.